

전주시정연구원, 싱크 탱크 안정적 안착

17개 연구과제 동시 수행... 2개 과제는 7월 중 완료 예정

출범 7개월째를 맞은 전주시정연구원(원장 박미자)이 17개의 연구과제를 동시에 수행하는 등 전주시의 싱크 탱크로 안정적으로 안착하고 있다. 전주시정연구원은 '전주시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 방안'을 시작으로 '전주시 도시개발 추진방안', '완산공원-한옥마을 관광연계 방안' '덕진공원-건지산 일원 지속가능한 개발 방안' 등 17개 연구과제를 추진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특히 연구원은 시정, 발전에 관한 중·장기 계획의 수립 및 주요 정책에

대한 조사·연구를 위해 올해 상반기 '전주시 생활인구 확대 방안 연구' 등 총 12개 연구과제를 수행해왔다. 이 가운데 '전주시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 방안 연구', '전주시 도시개발 추진방안'은 이달 중 완료 예정이다. 그동안 '도시기본계획을 통해 보는 전주시 도시공간 변천사와 과제'와 '인구감소시대에 대응하는 전주시 인구정책 방향 및 과제'를 주제로 담야 정책 브리프를 발간하기도 했다. 올해 2월에는 전주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등 관련 정책

지원을 위해 '전주탄소중립지원센터'로 지정받아 4월에 개소식을 갖고, 탄소중립 공동포럼, '제3차 기후위기 적응대책 세부 시행계획 수립 연구' 등 2개 수탁연구과제를 포함한 7개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하반기부터는 12개 과제에 경제산업분야 등 5개 과제를 추가, 총 17개 이상의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이런 과제들은 기본연구뿐 아니라 정책·현안연구 등 전주시민 생활에 맞춘 다양한 분야의 연구들로 '왕의 궁원 마스터플랜 수립'과 '전주시 중장

기 도시공간 발전 구상을 위한 기본연구' 등 13개 과제를 올해 안에 완료 예정이다. 특히 전주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선제적이고 실용적인 지역 맞춤형 정책연구 및 협력과 소통을 통한 '지속 가능한 도시 구현과 시민의 꿈을 실현하는 지방연구원의 대표주자'로서의 비전을 구현해 나가고 있다. 박미자 원장은 "전주의 중장기적 미래 비전을 설계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아, 연구과제뿐만 아니라 전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 사업을 견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옥기 기자



전주시의회가 29일 (재)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임명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다.

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인사 청문

전주시의회, 경영 능력·자질·전문성·도덕성 등 검증

전주시의회가 29일 (재)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임명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다. 이날 청문회는 위원장에 최주만 부의장, 부위원장에 장재희 의원을 비롯해 김세혁·김학송·신유정·은혜정·장병익·천서영·최서연 등 9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청문회에서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임명후보자로 추천된 전병순(61)씨에 대한 경영 능력과 자질, 전문성, 도덕성 등에 대한 검증이 이뤄졌다. 특히 의원들은 노사문제 및 직장 내 갑질 예방, 직원 소통 방법 등 조직 운영 방안과 전주시 강점 특화산업 발굴 및 발전 계획 등 직무 수행 능력을 중점적으로 검증했다. 최주만 위원장은 "급변하는 IT·CT 관련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관련 기업의 성장과 새로운 일자리를 통해 지역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대표적 기관이란 점에 주안점을 두고 후보자에 대한 자질과 능력 등을 검증했다"고 말했다. 인사청문특별위원장은 3일 이내 경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채택해 전주시에 전달할 예정이다. /김옥기 기자



전주 덕진구, 저소득 청·중장년 1인 가구 밀키트 꾸러미 지원

전주시 덕진구(구청장 한병삼)는 저소득 청·중장년 1인 가구 40세대에 밀키트 꾸러미를 지원했다. 지난 5월 큰나무종합사회복지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동 담당자, 배속업체와 협력하여 여름철 보양식을 포함한 다양한 메뉴로 대상자를 가정 방문하여 정기적으로 전달했다. 청·중장년 독거 가구가 늘어남에 따라 취약가구에 6월~7월, 주 1회(총 8회)를 조리가 간편한 밀키트를 지원하여 식생활 개선 및 건강한 한 끼 식사를 하도록 하고 주기적으로 안부 확인과 모니터링 점검을 실시할 것이다. 모니터링 점검 결과 식사 실천율은 사업추진 전 50% → 후 97%로, 47% 증가하였으며, 일부 식단에서 부정적인 의견도 있었지만 다양한 메뉴 구성 등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97%로 매우 높았고 사업 지속 추진을 희망했다. 이에 덕진구(생활복지과)에서는 고독사 위험의 사후관리가 필요한 가구 발생 시 사례관리를 통한 추가적 지원과 밀키트 지원 사업의 지속 추진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한병삼 덕진구청장은 "지역사회가 저소득가구의 어려움을 체감하고 보호하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며 건강한 한 끼 밥상으로 시작해 다양한 복지사업으로 살기 좋은 전주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전주시는 29일 완산도서관에서 우범기 전주시장, 남관우 전주시의회 의장, 최용철 행정위원장, 진형서 전북도의회 교육위원장, 지역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완산도서관 재개관식'을 가졌다.

'완산도서관'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

전주시, 전시실·출판체험실 등 갖추고 재개관식 가져

전주시는 29일 완산도서관에서 우범기 전주시장, 남관우 전주시의회 의장, 최용철 행정위원장, 진형서 전북도의회 교육위원장, 지역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완산도서관 재개관식'을 가졌다. 지난 1989년 개관한 완산도서관은 2018년까지 전주시립도서관 본관의 역할을 수행하다가 지난 2023년 2월부터 노후화된 도서관을 정비하는 환경 개선 공사를 진행했다. 새롭게 재개관한 완산도서관 1층 문화공간에는 놀이와 예술이 있는 체험형 전시 공간인 '완산미투', 미디어 콘텐츠 제작이 가능한 스튜디오 및 강의실이 있는 '미디어 창작소', 다양한 문화 행사가 펼쳐지는 '열린 무대' 등이 자리를 잡았다. 2층 종합자료실에는 이야기 안에

서 산책하고 책놀이를 할 수 있는 '어린이자료실'과 책에서 발견하는 사유와 후시의 여행을 떠나는 '일반자료실'이 있다. 또한, 기존의 답답한 도서관에서 벗어나 자연과 함께하는 증별 야외 테라스가 마련되어 있다. 3층은 글쓰기 특화도서관인 완산도서관의 특색을 살려 2021년에 조성된 '자작자작 책 공작소'가 위치해 있다. 자작자작 책 공작소에는 입주작가 집필실, 강의실, 출판체험실 등이 조성되어 있다. 입주작가 집필실에는 전문작가 12명, 시민작가 10명이 6개월간 창작활동을 펼쳐 시민들과 함께 사회공헌 프로그램 등을 진행한다. 또 출판체험실에는 인쇄기와 제본기, 재단기가 구비되어 있어 출판 기계를 활용한

DIY 출판 제작, 한 컷 등과 만들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번 재개관에는 '그림, 책과 친구가 된다'를 주제로 완산미투에서 첫 개관 전시가 개최된다. 전주에서 활동하는 16명의 중견 작가들이 완산도서관 개관을 함께 빛내주었으며 30여 점의 작품을 완산미투에서 감상할 수 있다. 서양화와 한국화, 공예, 사진 등 각 분야의 대가들이 모인 이번 전시는 오는 10월 15일까지 진행된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한 완산도서관이 한옥마을, 남부시장, 꽃동산과 이어진 체류형 관광벨트의 한 축으로서 새로운 관광명소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되며, 완산도서관이 전주시민이 가장 아끼는 공간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전주시설공단, '원컬러' 시설 관리로 안전사고 예방

주차 관리 레드카펫 이어 수영장 블루카펫·골프연습장 옐로우카펫 설치

전주시설공단(이사장 구대식)이 '레드카펫'을 기반으로 '블루카펫'과 '옐로우카펫' 등 '원컬러(One-Color)' 시스템을 시설 관리 전반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29일 공단에 따르면 완산수영장과 덕진수영장, 도내거 국민체육센터, 라온 체육센터 4곳에 '블루카펫'이 설치될 예정이다. 이들 4개 체육시설은 모두 수영장 시설로, 물기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이용객 동선에 따라 미끄럼 방지 매트와 설치하는 것이다. 매트 색깔을 물 색상으로 통일되는 '파란색'으로 통일해 직관성을 높인 게 핵심이다. 즉 '파란색'만 따라가면 물기로 인한 안전사고 걱정 없이 안전하게 수영장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이다. 화산체육관에 있는 실내골프연습장에는 '옐로우카펫'이 설치된다. 공단은 '레드카펫'으로 지난 7월 전국지방공기업발전협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 /김옥기 기자



이같이 체육활동 중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공간을 이용객들에게 인식시켜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공단은 '옐로우카펫'을 전 체육시설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 두 '카펫'은 앞서 공단이 주차 관련 시설 전반에 적용한 '레드카펫'을 기반으로 한다. 레드카펫은 근무자 복장과 요금정산기 등 공영주차장과 관련된 시설 전반에 '빨간색' 한 가지 색깔을 적용해 시민들이 공영주차장을 직관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이다. 공단은 '레드카펫'으로 지난 7월 전국지방공기업발전협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 /김옥기 기자

전주천을 살립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이전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km²,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솔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